

다시, 오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15일 5·18 특별기획공연 '화합'을 선보일 광주시향 모습.

클래식·국악·뮤지컬로 5·18을 전하다

광주시향, 15일 베토벤 교향곡 '합창' 문예회관 잔디마당 야외무대
5·18 민주화운동 담은 뮤지컬 '광주'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국악전수관 '진도 씻김굿'...가무악극 '달 봉우리 빛나는' 등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오월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대중정신을 클래식과 국악, 뮤지컬 등으로 전하는 무대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은 5·18 특별기획공연 '화합'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은 5·18 4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음악회로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의자형 객석이 마련된다.

이날 선보일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특히 독일 시인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4악장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연은 광주시향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하며 차세대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윤상아, 벨칸토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영국 로열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활동 중인 테너 김재형, 국내 정상급 베이스 함석현이 솔리스트로 무대에 선다. 또 4악장의 웅장한 합창을 선사할 합창단으로 광주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이 참여한다. 문의 062-524-5086.

진도씻김굿보존회는 오월 민주영령들을 위한 씻김굿 공연을 펼친다. 1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진도씻김굿보존회는 5·18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진도씻김굿은 망자의 넋을 씻겨 그 넋이 극락 왕생 하도록 하는 천도 의례로 지난 1980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2호로 지정됐다.

씻김굿의 전반부인 조양굿, 안당, 초가망석, 손님굿, 제석굿은 산 사람들의 복락 축원을 위하여

고 고포이, 씻김, 낚을리기, 약풀이, 희설, 길담음, 종천 등의 후반부는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돼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 호평을 받은 뮤지컬 '광주'가 광주에 온다. 올해 두 번째 시즌은 지난 4월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는 15일(오후 2시·6시30분)~16일(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라이브(주), 극공작소 마방진과 함께 제작했다.

'광주'는 80년 5월 유엔비어를 퍼뜨리고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일명 편이대) 박한수가 광주시민의 참상과 향기를 보면서 느끼는 심리변화를 담고 있다.

편이대원 박한수의 양심고백과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는 장면이 추가되는 등 지난해 관람객 의견을 수렴해 등장인물 서사와 스토리를 보완했으며, 새로운 넘버도 관객과 만난다. 박한수가 느끼는 인간적 고뇌가 반영된 '여기 서서 생각해'와 광주시민이 스러져간 이들을 기억하며 부르는 '지키지 못한 약속' 등은 감동을 선사한다. 입장권은 인터파크티켓에서 판매 중이다. 문의 062-670-7493.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창·제작 공연 '대동춤II'를 오는 16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 1에서 공연한다.



소프라노 강혜명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와 안무가, 제작진 100여 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립발레단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협연 무대도 마련해 지역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01-4039.

광주국악상설공연 5·18 특별공연은 18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는 작곡그룹 '축'이 무대에 올라 창작가무악극 '달 봉우리 빛나는'을 공연한다.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사잇길에 머물러 길 잃은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사'가 조선시대 유학자 '기대승'과 5·18 때 죽은 광주일고 학생 '이원준'이 그 길을 함께 지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제주 4·3평화재단은 4·3 평화정신과 5·18 민주정신으로 하나되는 특별음악회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을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이에 앞서 제주 공연은 지난달 30일 제주아트센터에서 펼쳐져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공연은 제주 4·3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 아리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아노협주곡 '5월, 광주'로 구성됐으며,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강혜명, 테너 윤병길, 피아니스트 심희정 등이 출연한다. 전석 초대. 062-670-749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의 흔적 '거친 땅, 곧은 물줄기'

송필용 작가 초대전, 31일까지 문화공원 김넷과

서양화가 송필용 작가의 이번 초대전 제목은 '거친 땅, 곧은 물줄기'다. 그의 40여년 화업을 오롯이 품고 있는 듯한 주제라는 생각은,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림들을 보면 확실해진다. 직선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와 거칠고 생명력 넘치는 화면에서 발산되는 기운은 숨쉬는 대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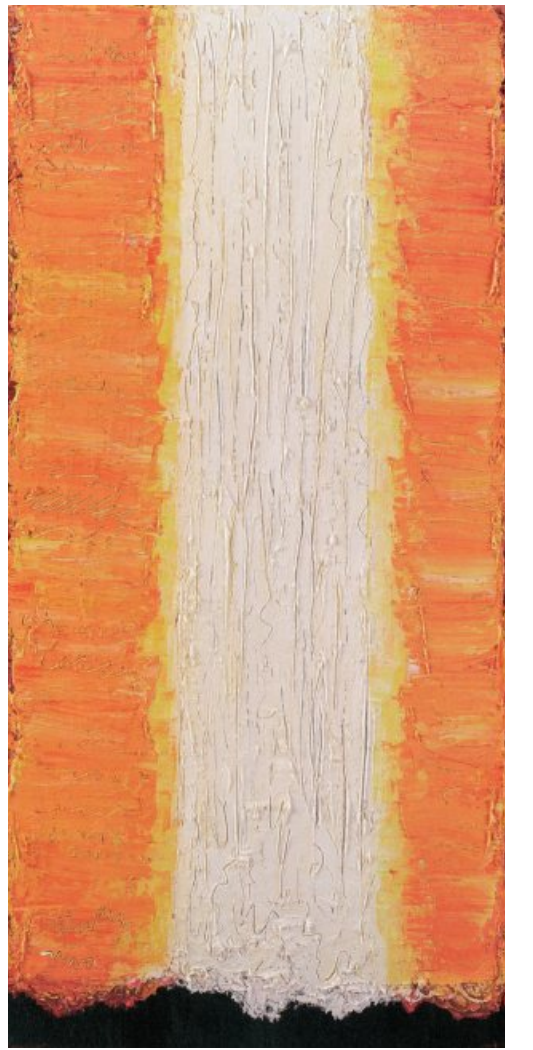
송필용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문화공원 김넷과(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에서 열린다. 지하와 2층 전시실, 1층 카페 등 모두 세 개층에 걸린 작품은 50여점이다. 2019년, 2020년 작품들이 주로 걸린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20여년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폭포' 그림의 변화와 다양한 변주를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2층 전시실 입구에 걸린 대형 작품 '곧은 소리-구룡폭포'는 폭포 그림의 '처음'을 보여준다. 거침 없이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데서 출발했던 작품은 점차 생략되고, 추상화돼 지금은 '폭포의 본질'만이 남아있다.

대학 시절 오월의 현장에 있었던 그는 '땅의 역사' 시리즈 등을 통해 월출산, 백악산 등 꿈틀거리는 황토빛 전라도 땅을 배경으로 대지의 생명력과 동학혁명, 5·18 등 민중의 역사를 담아냈다. 15차례 이상 올랐던 금강산은 그의 작품의 또 다른 공간이 됐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금강산 풍경을 모두 눈에 담고, 그 기운을 몸에 담아 작품에 몰두했다.

전시회의 또 다른 키워드인 '조화기법'은 재료와 기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르는 말이다. 자기 표현에 조각칼로 문양을 새기는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을 뜻하는 '조화기법'을 차용한 송 작가는 화면에 수없이 많은 색을 덧칠하고, 굵어내면서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간다. 무심한 상태에서 때론 자연스런 붓질과 굵기가 이어지고 때론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고 노래한 김수영의 시 '폭포'의 일부분을 새겨 넣기도 했다. 붓끝과 칼끝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은 더 두터워지고, 거칠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푸른빛의 폭포와 더불어 다양한 색감의 폭포 작품이 나왔다. 수많은 색을 쌓고, 굵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면은 자연스레 겹쳐지고 얹히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또 다른 느낌



'심연의 폭포'

을 전한다.

그밖에 푸른빛의 기운이 청명하게 느껴지는 5·18 광장의 솟구치는 분수대를 그린 '오월의 샘'이나 황토빛 땅에 떨어진 붉은 동백꽃의 모습이 아름다운 '땅에서 피다', 금강산의 기암괴석의 모습을 표현한 '몽유극강' 등의 작품은 위로를 전한다.

"폭포를 그리기 시작한 게 20여년이 넘지만 여전히 힘들더군요. 쏟아지는 폭포에는 모든 삶의 흔적과 궤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떨어지네리고,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폭포의 본질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해내는 과정들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두텁게 덧칠해진 그의 화면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역사를 쌓아가는 우리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상록도서관, 7월까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12일 첫 강연, 조선대 이석현 교수 '재난의 역사-자연재해' 주제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은 12일부터 오는 7월까지 '재난의 인문학'을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을 거점으로 강연과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8시에 걸쳐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며 5·18 국립묘지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첫 강의는 이석현 조선대학교 교수가 '재난의 역사-자연재해'를 주제로 지난 지구촌 역사에서 일어났던 동서양의 자연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을 펼친다. 26일에는 예방일 연세대 교수가 '재난의 역사-질병'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밖에도 '재난의 역사-인재'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재난과 영화' (신형철 조선대 교수) 등의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시각(영화, 예술, 문학 등)을 통해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문의 062-350-45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광주'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